

人間社會와 原子力의 共存을 圖謀



白石 晶一

〈九州電力(株) 副社長・日本代表團長〉

韓國 動力資源部 李鳳瑞 장관님,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安秉華 회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第11回 韓日原子力産業세미나의 개최에 즈음하여 日本代表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本人은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일년 전에 개최되었던 제9회 한일원자력산업세미나에 참석하였었으므로 이번에 2년 만에 서울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새로 느낀 것은 「和合과 前進」이라는大會슬로건에 어울리는 사상 최대의 규모로 성공리에 치루어진 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어서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변모하였다는 것입니다. 韓國이 이처럼 큰 進展을 성취하신데 대하여 새삼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여기서 日本의 情勢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日本의 景氣는 1987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의 円高・原油價格의 低下에 따른 과급효과와 金融緩和基調의 정착에 더하여, 內需擴大 등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일본경제는 현재도 순조로운 확대과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內需主導型 경제로의 구조변화를 수반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동향을 배경으로 하여 에너지需要 및 電力需要는 모두 대폭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수급예측에 대하여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日本에서는 현재 운전중인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37基, 합계출력 2,928万KW에 달해, 全體 發電設備容量中 점유율은 작년말 현재 약 17%가 되었습니다. 또 작년도의 全發電電力量中 原子力發電의 점유율은 약 27%에 도달했습니다.

原子力이 갖는 에너지 안전보장 面에서의 우위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자주적인 核燃料週期를 확립함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富集濃縮, 使用後核燃料 再處理 및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현재 青森縣 룩카쇼村에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원자력은 일본에서 石油代替에너지의 中核으로서 본격적인 이용 단계에 도달하여,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저렴하고 良質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責務가 부과되었습니다.

원자력 개발이용의 추진은 국민의 충분한 理解와 信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개최된 알슈정상회담이나, 지난 달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에서 地球温暖化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토의가 거듭되어 원자력이 수행할 역할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에 기인하는 원자력반대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에너지문제, 기술문제가 아니고, 人間社會와 원자력이 어떻게 共存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原子力發電의 社會的 影響과 國民의 理解」라는 기초테마 하에서 韓日 兩國의 권위자, 전문가 여러분 사이에서 기탄없는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귀중한 제언을 하게 되었음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이며, 대단히 의의 깊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결실이 많은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韓國原子力産業會議 및 관계 기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의 발전을 중심으로 축복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